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위원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위원장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5,13)



하지만 세상의 잘못을 외면하면서, 제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 [제 1독서] 이사 58,7-10
 [화답송] 시편112(111),4-5,6-7,8과9(◎4~)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 되리라, 후하게 이끌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속에 높이 들리리라.◎

- [제 2독서] 1코린 2,1-5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음] 마태 5,13-16

성가	8시 미사	입당 421	봉헌 211 212	성체 157 156	파견 32
	11시 미사	입당 421	봉헌 211 212	성체 157 156	파견 426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5주일(2월 9일)		연중 제6주일(2월 16일)		연중 제7주일(2월 23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황테레사(혜정)	정스텔라(애리)	이마리크레센시아	김글라라(순희)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최다니엘(대연)	김안드레아(찬곤)	허라우렌시오(순구)	이마오로(명국)	구미카엘(창희)
제 2 독서	최분다(수영)	서테레사(춘애)	김글라라(순희)	김테레사(승희)	정스텔라(애리)	이골롬바(정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세상의 빛과 소금

4년 7개월간의 사목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송별 미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바로 엇그제 이곳에 부임한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가장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본당의 교우 여러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미사 중에 교우 여러분과 모든 은인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감사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 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마태5, 16)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빛은 어둠을 밝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빛이 되셨습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마태5, 13)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부패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음식을 소금에 절여서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빛의 역할을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다 할 때, 이 세상은 좀 더 조화롭고 아름다우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부패와 타락에 빠져들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

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혈벙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 (이사 58, 7-8)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자신의 역할을 깊이 깨닫고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합시다. 아멘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병자 예수님!

병원사목을 시작한 지 어느새 2년 반이 되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과 강원대 병원을 오고 가며 그냥 자리만 지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대 병원 완화병동 간호사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 ‘카타리나’ 가 찾는다고 합니다. 신나게 늦잠자다가 성심병원 가서 환자들 방문하고 미사하고, 저녁 5시가 넘어서야 완화병동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통에 시달리며 저를 기다리던 카타리나가 저를 보더니, “왜 이제 오셨어요?” 하며 원망합니다.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저를 ‘신부님’ 이라고 종일 기다려온 ‘카타리나 예수님!’ 늦게 와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기도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손을 잡고 자장을 불러 줍니다. 잠이라도 편히 주무시라고,
“잘자라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착한 아가”

아고버 예수님, 브루노 예수님, 보나 예수님, 세실리아 예수님... 잘 못해줘서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루 빨리 연옥 고통 마치고 천국에서 천사처럼 행복하세요.

병원에 오는 사람은 1.죽음을 맞으러 오는 사람 2.병 고치러 오는 사람 3.병자를 돌보러 오는 사람(의사, 간호사 직원들, 간병인) 4.배우러 오는 사람들(봉사자, 가족, 친지)로 나뉩니다.

병원은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아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이야기들을 매일 쏟아냅니다. 우리는 인생을 공부하고 신앙을 공부하고 고통과 죽음을 공부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참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 이 점점 줄어들어서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비단 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봉사자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사회에 ‘사랑’ 이란 이름의 산소가 심각하게 결핍되고 있는 중입니다.

산소가 결핍되면 사람이 질식사해서 죽게 되듯이, 사랑이 결핍되면 사람이 괴물이 되어 온갖 문제를 저지르다가 죽게 됩니다. 인생을 값지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멀리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들의 해법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교황님이 된다면(웃음), 저는 모든 천주교 신

자들에게 일주일에 4시간씩 자원봉사를 의무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본당마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각종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여 수준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예수님들께 즉시 파견할 것입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른 예수님께 친구가 되어 드리고, 헐벗은 예수님께 따뜻한 집을 마련하고, 병자 예수님께 친절을 베풀고, 나그네 예수님께(새터민, 다문화) 고향을 선사하고, 갇힌 예수님(교도소, 각종 중독자)을 찾아 뵙게 하렵니다.

제가 교황이 되면 골치(?) 아플테니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세요.(웃음) 지난 2년 반 동안 저를 도와 ‘병자 예수님’께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원석 마리아벨로 신부 /춘천교구 모곡 피정의 집 원장



깜깜한 빈방 십자가 앞에서
남몰래 억울하다 흐느끼던 날
말없이 어깨 잡아 일으키던 손
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글_조창환 시인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재미있는 것과 의미 있는 것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K팝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한국의 가수들이 매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리듬, 완벽하게 준비된 댄스, 그리고 멋지게 차려 입은 스타일 등으로 매우 주목을 받고 있지요. 작년 여름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우 신나는 리듬에 따라서 부르기 쉬운 가사의 노래였지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특이한 의상을 입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듯한 안무를 선보였는데 그것 역시 매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쉽게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 역시 그렇게 듣다가 보니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될 만큼 참 신나고 재미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그 노래의 가사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에는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리듬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지만 정작 노래의 가사에는 아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 노래와 가수를 비난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래의 가사에는 아무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지만 단순히 신나고 재미있는 리듬과 안무만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코드와 우리들의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흔히 불후의 명곡이라고 말하는 노래들은 좀 다릅니다. 잠깐 동안 인기를 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래들을 보면 그 가사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잠깐 주목을 받기보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의미 있는 것을 찾기 보다는 신나고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이런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에이, 그건 재미없어요. 하기 싫어요.” 재미없으니까 하지 않겠다?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수많은 다양한 문화 매체들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

리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저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만 찾아 다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나고 재미있는 일인가?’ 하고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재미있는 인생만을 만들려 하기보다 참으로 의미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깊이 기억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황은모 요한 신부/대구교구

+ 목자의 소리

우리 삶에 위대함과 충만함을 불어넣는 신앙,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총의 힘에 중심을 둔 신앙.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확신은
초대그리스도인들을 고취시켜
선교에 나서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빛 5항

가톨릭전례

믿음과 사랑 :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1요한 3,16)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의 '세계 병자의 날' 담화 (요약문)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22차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저는 특별히 병자들과 그들을 돕고 보살피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올해 세계 병자의 날의 주제는 ‘믿음과 사랑 :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1요한 3,16)” 입니다.

교회는 고통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특별히 현존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통 안에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고통의 외로움을 물리치시고 그 어둠을 밝혀 주시며,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질병과 고통을 몸소 짊어지심으로써, 질병과 고통이 더 이상 최종 선고가 아니기에 풍요로운 새 삶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고통은 변화되어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힘입어, 우리는 고통 받는 모든 이를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이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1요한 3,16).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 받은 그들에게 하느님의 미소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헌신이 우리 행동 양식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고 그 온기를 누리며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다른 이를 존중하는 자상한 사랑과 자애를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 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당신 자녀들의 필요와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불굴의 인내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마리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와 고통 받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과 함께 서 있던 제자, 요한 성인은 우리를 “사랑이신” (1요한 4,8.16) 하느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인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과 함께 서 있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이 제22차 세계 병자의 날을 마리아의 전구에 맡겨드립니다. 병자 여러분들이 예수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도와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을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모든 병자 여러분과 그들을 돌보는 보건의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교황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라이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2월 9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김마리아(진월)	김데레사
	연	이크리스토퍼(선근)	김데레사
	생	본당신부님	김데레사(영자)
	생	본당신부님	임루시아
	생	찬미성가대	유리디아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넷
	생	김유릿다	성루카
	생	김유릿다	한수산나(서연)
	생	김아가다(옥희)	조바실리오
	생	조엘리사벳(영순)	조바실리오
	생	조카타리나(용숙)	조안셀모(승훈)
	생	안나회원들 건강	안나회
	생	정안드레아(일양)	신빈첸시오(우현)
	생	정안드레아(일양)	유리디아
2월 11일 화	연	최베드로(취중)	가족
2월 14일 금	연	최마틸다	김로사(은수)

* 백승진/김은수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100 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4	234	35	334
헌 금	\$507	\$1,732	\$38	\$2,277

< 교무금 > \$5,179

서춘애(2) 채용분(2) 한서연(3-4) 전숙희(2)
 김영길(1-2) 이병열(2) 임승원(1-2) 김옥녀(2)
 김종성(1-2) 장찬호(1-3) 심재구(2) 천종욱(2)
 김영희(2) 이명란(2) 이순열(1-4) 구창희(2)
 한치용(1-3) 조우송(3) 황정희(2) 전문자(3)
 최몽렬(12/13, 1/14) 정진희(2) 백승진(1-2)
 박호영(2) 신진남(1-2)

< 성소후원금 > \$130

서춘애(2) 채용분(2) 전숙희(2) 박호영(2)
 정진희(2) 이명란(2)

< Bishop's Appeal >

서춘애(2-4)

< 감사헌금 >

영세자 일동 \$100

< 초봉헌 >

정병구 \$100

~~~~~ 오늘은 본당에서 전신자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김광근 도미니코 신부님 송별 미사 안내  
2월 9일(오늘) 8시/교중미사  
\* 저희 본당에서의 사목을 마치고 떠나시는 도미니코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8시/교중미사 후 전신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김명식 가브리엘 신부님 부임 미사 안내  
2월 16일(다음 주) 8시/교중미사

◆ 2차 헌금 안내  
2월 23일 :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한인사목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헌금

◆ 2014년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현재 198 세대 중 101세대가 약정하셨습니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구역장회의 : 2월 9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요아킴/안나회 : 2월 9일(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 평협회의 : 2월 16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전례 복사단 모집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이라면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박규진 알베르도 415-519-6811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건강검진 안내  
여의도 성모 병원에서는 해외 교우들을 위하여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약 40%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습  
니다.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비치된 추천서  
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세금보고 자료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 가십시오.

**2월 구역모임 테살로니카2서 1-3장**

|       |             |            |
|-------|-------------|------------|
| 6 구역  | 2월22일(토)5시반 | 조상희 마리아 댁  |
| 8-1구역 | 2월22일(토) 5시 | 김원조 도미니코 댁 |
| 9 구역  | 2월15일(토) 6시 | 김승모 스테파노 댁 |

◆ 길잡이 학교 4기 수강생 모집  
대상 : 관심 있는 꾸르실리스따 모두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일일피정  
일시 : 3월 15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Presentation Center ( 프레젠테이션 센터)  
19480 Bear Creek Rd. Los Gatos,  
주제 : 일치의 여정  
강사 : 한승주 스테파노 산호세 성당신부님  
최동원 베드로 교육부장  
참가대상 : 각 본당 성령기도회 봉사자 및 기도회원과  
관심있는 교우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신청 및 문의 : 각 본당 성령기도회

◆ Hair Cut 봉사자께서 도네이션 받으신 \$100 을  
트라이밸리 성당 성전 기금마련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

**안국학교 소식**

- 2월 15일 : 휴강(프레지던트 데이)